

“中企 옴부즈만이 뭐가요”

“옴부즈만이 무슨 일을 하나요.”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사진)이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협의하기 위해 각 부처와 관공서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자주 듣는 말이다. “90% 이상이 옴부즈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그는 말했다.



이 낮은 지방 공무원이 행사에 조금 늦었다고 옴부즈만을 혼계했다. 한 지방에선 시장이 나온다고 옴부즈만을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규제 등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는 차관급 직책이다. 옴부즈만(ombudsman)은 ‘대리인’이란 의미의 스웨덴어다. 1713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다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옴부즈만 명칭 변경과 조직 강화 등을 건의했다.

발음 어려운데다 안 알려져 공무원들도 뭐하는지 몰라 홈페이지 등서 새 이름 공모

박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이란 명칭이 낯설고 어려워 국민이 쉽게 인지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 조직으로 쏟아지는 중소기업에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년명명 중이었던 스웨덴 국왕 찰스 12세가 본국을 다스리기 위해 왕의 대리인으로 옴부즈만을 임명했다. 옴부즈만은 공무원들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행정 불만을 조사·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 역사에서 찾아보면 암행어사쯤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건의를 받아들여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소기업옴부즈만 홈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새 이름을 공모했다. ‘중소기업 하이로’ ‘중소기업 민원해결사’ ‘중소기업 암행어사’ ‘중소기업 SOS’ ‘중소기업 신문고’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2009년 7월 중소기업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외래어로 발음이 어려운 데다 잘 알려지지 않아 업무 추진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적당한 이름을 찾지 못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관계자는 “마땅한 이름을 찾지 못해 아직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만이 겪은 해프닝도 있었다. 차관급 중소기업옴부즈만보다 훨씬 지급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성원제이에스 ‘원더랙플러스’

“조립·분리 간단한 철제 선반… 공간 자유롭게 활용”

‘지구 끝까지 연결하세요.’

진열대업체 성원제이에스가 생산하는 맞춤형 선반 ‘원더랙플러스’의 홍보 문구다. 상품 구매 시 함께 제공되는 고무망치를 활용하면 볼트, 너트 없이 철제 선반을 무제한으로 연결할 수 있다. 세탁실과 드레스룸 등에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인기다. 진성계 대표는 “성원제이에스는 1987년부터 진열대와 관련 소품을 전문 제작했다”며 “2016년 가정용으로 출시한 원더랙플러스는 튼튼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소비자 사이에 입소문 이 난 제품”이라고 말했다.



진성계 대표가 드레스룸 등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원더랙플러스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선반당 100kg까지 견디는 강판 성원제이에스는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제품을 100% 직접 생산한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국내 대형 유통회사의 진열대를 주로 제작한다. 진 대표는 “포스코 강철로 제조한 철제 선반은 선반당 100kg까지 진열할 수 있다”며 “월과 뒤틀림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원제이에스 개요	
설립	1987년 10월
위치	인천 남동구 고잔동
제품	원더랙플러스
특징	볼트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철제 선반

원더랙플러스의 기둥과 선반받침은 1.6mm 두께로 제작된다. 기둥 높이는 5가지(900mm, 1200mm, 1500mm, 1800mm, 2100mm)로 다양하다. 기둥마다 수평조절이 가능한 조절구가 달려 있다. 기둥과 선반은 분체도장으로 색을 칠해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녹이 생길 염려가 적다. 분체도장

은 아주 고운 가루 입자를 제품에 고르게 뿌려서 색을 입히는 방법이다. 칠해진 면이 일정하고 공기 중으로 가루가 날리지 않아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알려져 있다.

수납물 크기 따라 높이 조절
세탁실·드레스룸 등 꾸밀 때
높이 관계없이 설치해 인기
포스코 강철로 만들어 튼튼
100kg까지 물건 적재 가능

볼트, 너트가 필요하지 않아 조립과 분해가 간편한 것도 특징이다. 진 대표는 “기둥과 받침 등이 클립방식 구조로 흠에 끼운 뒤 고무망치로 두드리기만 하면 조립이 끝난다”며 “기둥빔에 50mm 간격으로 홈을 배치해 수납물의 크기에 따라 선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드레스룸 같은 공간 활용에 최적화 원더랙플러스는 2016년 출시 이후 자체 쇼핑몰과 오픈마켓 등 온라인으로만 판매하고 있다. 세탁실, 드레스룸 등 새로운 공간을 꾸밀 때 높이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입소문을 탔다. 진 대표는 “세탁실에 드럼세탁기와 건조기 등을 함께 설치하거나 옷장 보관하는 드레스룸을 꾸미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 (sljun@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10·11월 으뜸중기 제품 △시코드-스마트 블루투스 헤드셋 위드유 △코아드-스피드도어 △성원제이에스-철제선반 원더랙플러스 △핏핏-핏핏 어헤드 반려동물 소변검사키트 △바이오셀드-3D포밍 풀커버 플렉스글라스 △아기연구소-이드베베 일회용 침팬이 원데이비프스 △다인스-발 각질제거기 트리케라 △아베크-팻 헬스케어러 아베크

가정이 늘고 있다”며 “다양한 크기로 제품을 조합하고 수평이 맞지 않는 바닥면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이라고 말했다.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테마별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한다. 주방과 베란다, 거실장, 아이방, 원룸 등 용도마다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원더랙플러스를 구입하고 설치한 소비자들이 행거봉과 바스켓, 하부 서랍장 등 추가 구성품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공간을 꾸미고 제품 개선타입 등을 먼저 건의하기도 한다. 진 대표는 “가장 인기있는 구성은 드레스룸에 설치하는 용도”라며 “기둥 2개만 추가로 구입하면 선반을 추가로 확장할 수 있어 보관하는 옷의 규모에 따라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여행이 있어 특별한 보통날
다양한 여행철인 혜택과 가을 여행의 즐거움이 가득한 여행주간! 지금 바로 여행주간을 검색해 보세요

10.20-11.4

관광진흥국, 한국관광공사, travelweek.visitkorea.or.kr, tour.go.go.kr, 경상남도, 경상북도관광공사

바디프렌드·롤스로이스 마케팅 손잡았다

안마의자업체 바디프렌드가 영국 럭셔리 자동차업체 롤스로이스와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

롤스로이스는 오는 31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바디프렌드의 카페형 매장 ‘카페 드 바디프렌드’에서 자동차 ‘레이스’를 전시한다(사진). 바디프렌드는 롤스로이스 차량 소유주에게 다음달 4일까지 이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애프터눈 티 세트 쿠폰을 제공한다. 바디프렌드 관계자는 “바디프렌드와 롤스로이스의 주요 고객층이 겹쳐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내벤처 지원프로그램 운영기업 LG디스플레이 등 18社 추가 선정

코맥스·프론틱 등 中企 8社 포함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내벤처 지원프로그램’ 운영기업으로 LG디스플레이, SK텔레콤 등 18개사를 추가 선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LG디스플레이 SK텔레콤 등 대기업 5개사와 대상 등 중견기업 2개사, 한국중부발전 등 공기업 3개사, 코맥스 프론틱 등 중소기업 8개사다. 앞서 1차 운영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현대자동차 휴맥스 등 22개사였다.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은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다. 기업이 사내벤처팀을 발굴하고 지원하면 정부가 연계해 사내벤처팀의 사업화와 분사창업 등을 지원한다. 사내벤처를 육성하는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우대 확대, 사내벤처 지원 출연금 3배 규모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분사한 사내벤처기업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소득세 및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조영탁 대표, 15년간 쓴 경영에세이 모아 출간

교육업체 휴넷의 조영탁 대표(사진)는 15년간 쓴 경영에세이 ‘행복한 경영이야기’를 모은 책 《춘철활인》(총 10권)을 발간했다.

춘철활인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린다’는 뜻이다. ‘행복한 경영이야기’는 세계 석학과 최고경영자(CEO)들의 명언을 경영 에세이와 함께 정리한 무료 메일링 서비스다.



을 받는다. 15년 동안 책 691권을 포함해 경영자 317명, 작가 100명, 학자 163명 등의 명언을 소개했다.

조 대표는 2003년 10월 ‘어차피 해야 할 공부라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경영과 인문, 철학, 자기계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이 읽은 책의 명구를 뽑아 매일 오전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직장인의 아침편지’로 알려지면서 220만 명의 독자가 매일 아침 메일

이번에 발간한 《춘철활인》은 긍정, 비전, 열정, 인간관계, 실행, 리더십, 경영, 역경, 학습, 혁신을 주제로 총 10권으로 구성된다. 조 대표는 “한 편을 쓰는 데 보통 한 시간이 걸리니 총 3000여 시간을 투자한 셈”이라며 “공자와 소크라테스, 무라카미 하루키까지 동서고금을 망라한 지혜와 명언으로 인생의 지침이 되는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소상공인 ‘힐링캠프’ 연다 내달 12일부터 3박4일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로하기 위한 ‘힐링캠프’를 마련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힐링캠프는 소진공에서 운영 중인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사업의 하나다. 재기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3박4일 합숙하며 교육을 받는다. 다음달 12일부터 15일까지 총 30시간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참가자들의 자신감 회복과 적성에 맞는 직업 탐색, 자기소개서 작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